

#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 壬亂 戰爭實記를 中心으로 —

최재호\*\*

## 차례

- I. 서론
- II. 기존의 戰爭實記 분류방법 검토
- III. 전쟁실기 분류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
- IV.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새로운 試案
- V. 결론

### 【국문초록】

戰爭實記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되었기에 뛰어난 선학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로 사학계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쟁실기가 지니는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먼저 기존 연구자들의 전쟁실기 분류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 하여, 간과하고 지나간 점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 보충하고, 범박하기는 하지만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試案성격의 논의를 조심스레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먼저 敘述意圖에 따른 분류, 敘述時點에 따른 분류, 敘述主體가 敘述客體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른 분류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전쟁실기를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 대략 3종류의 성격이 대별되는 전쟁실기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

\* 본 논문은 2009년 11월 20일 동국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에서의 <전승>과 <번역> 연구인력 사업단이 주최한 '제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영성한 논지 전개에도 불구하고,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셔서 논문의 틀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신 숭실대학교 장경남 선생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며, 이체롭게도 3가지로 분류된 전쟁실기들은 각각 서사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인물 중심의 전쟁실기, 배경 중심의 전쟁실기, 사건 중심의 전쟁실기로 命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주제어

전쟁실기, 임진왜란, 서술의도, 서술시점, 인식태도, 인물, 배경, 사건

## I. 서론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1598년 정유재란까지를 함께 통칭하는 용어로 ‘7년 전쟁’<sup>1)</sup>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참화로 기억되는 7년간의 전쟁은 조선뿐 아니라 明, 日本 등에도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또한이러한 커다란 충격은 자연스럽게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작자들이 직접 目睹耳聞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사물이 창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戰爭實記이다.<sup>2)</sup> 전쟁실기는 실제 史實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지금까지 주로史料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어, 사학계를 중심으로 연

1) 일반적으로 사학, 문학계에서 임진왜란이라 함은 廣義의 의미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같이 이르고 있으며, 狹義의 의미로는 1차 일본 침입, 즉 임진왜란만을 의미한다. 전쟁 사학계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모두 합쳐 7년간 전쟁이 진행되었기에 ‘7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광의의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전쟁에서 전쟁의 가공되지 않은 생체험이 실기의 형태로 구조화된 것은 비단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체험이 軍記文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고, 명나라도 임진왜란에 참전한 군관인 호중현의 陣中日記, 사서일기, 미수현일기, 문문숙공일기 등이 전해진다. 전쟁이라는 경험은 큰 충격임과 동시에 문학의 중요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구가 진행되었으며, 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학들의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 전쟁실기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sup>3)</sup> 하지만 선학들의 업적을 이을만한 뚜렷한 성과가 최근에 이르러 나오지 않았기에 전쟁실기에 대한 연구는 지리한 담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후학들의 寡聞함에 서 기인한 것인데, 즉 전쟁실기가 문학으로서 학계의 관심을 받은 이후, 선학들을 넘어서는 뚜렷한 문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쟁실기가 지니는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試論성격의 글이다. 그 시작으로 먼저 기존 연구자들의 전쟁실기 분류방법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자들이 혹시라도 간과한 점은 없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쟁실기의 분류기준을 새로이 모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범박하기는 하지만 전쟁실기에 대한 새로운 분류를 試案의 성격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분류방법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이기보다는 전쟁실기에 대한 후학들의 우둔함을 스스로 경계하고자하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3)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蘇在英, 『壬亂과 捕虜日記』,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學研究院, 1980.  
 ———, 『壬亂捕虜들의 海外體驗』, 『旅行과 體驗의 文學』,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5.  
 黃汎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冠岳語文研究』 제20집, 서울대 國語國文學科, 1995.  
 李採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II. 기존의 戰爭實記 분류방법 검토

전쟁실기를 문학의 한 부분으로 규정한 이후 선학들은 다양한 잣대를 제시하며, 임란 전쟁실기를 분석하여 비슷한 성격의 작품끼리 묶는 시도를 계속하였다.<sup>4)</sup>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황패강,<sup>5)</sup> 이채연,<sup>6)</sup> 장경남<sup>7)</sup>을 꼽을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 연구 성과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황패강은 임란 전쟁실기를 실기작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작자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서 오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시각의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기 작자층을 편의상 執權層, 參戰官僚層, 參戰 民間人, 戰災民, 平民層, 附倭·叛徒·賊徒 등 6층으로 나누고,<sup>8)</sup> 그 대표가 될 수 있는 6편의 작품을 소개하였다.<sup>9)</sup>

- 
- 4) 임란을 배경으로 한 전쟁실기는 최소 30편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비슷한 작품끼리 묶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경우 전쟁기간이 짧았기에 전쟁실기 작품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비슷한 작품끼리 묶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 5) 黃汎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 6) 李採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 7)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8) 1. 집권층: 전쟁수행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대내외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한 지배적 사대부층  
 2. 참전관료층: 전투에 직접 참여한 관료와 관군에 속한 계층  
 3. 참전 민간인: 野에 있던 사류로, 왜란을 당하여 義兵을 규합하여 왜군에 항거하거나 官軍의 전투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한 층  
 4. 전제민: 왜란에서 人命과 身體 및 財産上의 災害를 당하거나 피난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층  
 5. 평민층: 집권층의 무능으로 일어난 왜란의 피해를 가장 혹독하게 당한 계층. 왜군에게 재물의 약탈, 인명의 살상, 납치 및 강제 노역 등 피해를 당하였고, 여인네는 강제 납치되어 능욕당하는 수모를 겪은 층  
 6. 부왜·반도·적도: 왜란중 賊中에 빠져 부득이하거나 혹은 자진하여 倭陣에 협력한 자, 무능한 조선에 불만을 품고 叛逆의 利敵行爲를 저지른 자, 전쟁의 혼란을 틈타 私慾을 채워 民生을 위협한 土賊 등 賊黨의 부류
- 황패강, 앞의 책, pp.29~30.

황패강의 성과는 임란 전쟁실기 분류방법의 指南이 되었다. 하지만 스스로 밝혔듯이 임란 전쟁실기 중에서 평민층과 부왜·반도·적도층이 작자인 작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柳軫의 『임진록』과 鄭榮邦의 『壬辰遭變事蹟』은 엄밀히 따지면 평민층과 부왜·반도·적도층의 시각으로 작성된 작품이 아니며, 평민층과 부왜·반도·적도층을 서술의 대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즉 임란 전쟁실기는 집권층, 참전관료층, 참전민간인, 전제민에 의해서 서술되었다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후학들의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다음은 이채연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채연은 임란을 배경으로 저술된 실기들은 저자의 체험세계, 신분 및 위치, 활동양상 등을 중심으로 편의상 從軍實記, 避亂實記, 捕虜實記로 나누었다.

임란 중군실기는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체험담으로, 전쟁 상황과 彼我間의 인명피해, 장수들의 활약상, 우리 측 전략의 허와 실, 왜군의 잔혹상 등 전투관련 제 양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柳成龍의 『懲毖錄』, 李魯의 『龍蛇日記』, 李擢英의 『征蠻錄』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난실기는 주로 적의 침입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겪는 체험담과 왜군의 잔혹상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며, 趙靖의 『壬亂日記』, 吳希文의 『瑣尾錄』, 柳軫의 『임진록』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포로실기는 포로체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 포로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피랍경위와 일본 내의 생활 및 조선으로의 귀환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

9) 집권층의 시각—柳成龍 『懲毖錄』, 참전관료층의 시각—李舜臣 『亂中日記』, 참전민간인의 시각—趙靖 『壬辰倭亂日記』, 전제민의 시각—吳希文 『鎖尾錄』, 평민층의 시각—柳軫 『임진록』, 부왜·반도·적도의 시각—鄭榮邦의 『壬辰遭變事蹟』.

酉避亂記』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10)</sup>

이채연의 논의는 저자의 체험, 신분, 활동 양상을 중심으로 전쟁실기를 그 내용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황패강의 논의보다 더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종군실기와 피난실기의 경우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그 분류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연구자 스스로가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경남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경남은 위의 두 연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정치하게 전쟁실기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는 임란을 체험한 작자들의 체험세계, 역할, 신분, 활동 양상 등에 따라 전쟁실기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작자의 체험방식에 따라 그 하위 유형으로 從軍實記, 捕虜實記, 避亂實記, 扈從實記로 구분하였으며, 이채연이 한계로 지적한 종군실기와 피난실기에 대한 분류의 모호성도 체험의 경중과 작자의 신분, 역할, 활동 양상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충분히 편입시킬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sup>11)</sup> 특히 장경남은 기존의 종군실기, 포로실기, 피난실기 이 외에 임금이나, 세자의 피난에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서술한 실기를 따로 호종실기라 명명하며,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서술양식에 차이에 따라 編年體的 서술과 記事體的 서술로 나누는 시도와 내용에 따라 公的 성향의 실기와 私的 성향의 실기로 구분하는 시도 또한 병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연구 성과는 실기문학에 관심을 가진 후학들의 典範이 되어 오히려 이후에는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새로운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다음 장부터는 기존의 논의에 비해 범박하기는 하지만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없는지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

10) 이채연, 앞의 책, pp.59~94.

11) 장경남, 앞의 책, pp.115~116.

고자 한다.<sup>12)</sup>

### Ⅲ. 전쟁실기 분류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

최근 들어 새로운 전쟁실기가 새로이 발견되거나 國譯<sup>13)</sup>되는 등 전쟁실기에 관심이 조금씩이나마 제고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다. 학계의 이러한 분위기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전쟁실기에 대한 문학적 연구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로 연구자는 우선 전쟁실기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범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자 하며 그 모색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새로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분류방법과 변별성을 갖고자 한다.

첫 번째, 전쟁실기 작가들은 어떠한 서술의도를 가지고 전쟁실기를 서술했는지에 따라 전쟁실기를 분류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전쟁실기가 서술된 始點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분류도 시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임진왜란이라는 소재에 대하여 전쟁실기의 작자는 어떠한 인식태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라 전쟁실기를 분류하고자 한다.

12) 기존 선학들의 연구의 공통점은 전쟁실기 작품들을 분류할 때,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실기에 대한 문학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변별성이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13)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10월 23일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 의해 鄭慶雲의 『孤臺日錄』이 국역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 1. 敘述意圖에 따른 분류

모든 문학이 그러하듯이 전쟁실기 또한 작자의 서술의도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전쟁실기는 死線을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작성되었기에 그 속에 담겨진 작자의 서술의도는 다른 문학작품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녔으리라 생각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전쟁실기의 서술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전쟁실기를 새로이 분류하는 첫 단계를 내딛고자 한다.

전쟁실기의 서술의도 중 가장 큰 것은 주로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개인의 체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작가의 기록의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 사람에게 대한 鑑戒的 의도 또한 많은 작품에서 드러난다. 또한 日誌와 같은 형태의 실기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작자의 신분이나 관직에 의해 서술을 강요받기도 한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실기가 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서술되기도 한다.<sup>14)</sup> 이렇듯 전쟁실기의 서술의도는 매우 多岐해 보이지만 결국 ‘무엇을’, ‘누가’ 서술하였느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서술의도인 ‘왜’라는 의문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을’은 작자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자가 개인중심의 생활사를 서술하고 있는지, 또는 王室·官·軍중심의 공적인 史實을 다루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누가’라는 문제는, 즉 私的인 내용 또는 公的인 내용을 다루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소재로 전쟁실기를 작성

14) 유진의 『임진록』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유진은 『임진록』의 말미에서 임진록의 서술 의도가 2가지임을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작가의 기록정신에서 연유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소설처럼 ‘이야기삼아 보도록’ 한 읽을거리로 썼다고 밝히고 있다. -장경남, 앞의 책, pp.266~268.



하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작자가 民間人의 신분인지 또는 公人의 신분인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무엇을’의 문체와 ‘누가’의 문체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개인 중심의 내용을 민간인이 서술한 私的 실기와, 공적인 내용을 공인이 다룬 公的 실기로 쉽게 변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별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비록 작자의 신분이 布衣에 불구하고, 내용이 공적인 경우 또한 손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sup>15)</sup> 또한 한 실기 내에서도 사적 내용과 공적인 내용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사적 실기와 공적 실기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sup>16)</sup>

연구자는 기존의 논의에서 조금이나마 진일보하기 위하여 문학의 특성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문학은 크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쾌락성(pleasure), 교훈성(instruction)이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隨意와 實用이라는 용어로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隨意에 의한 글쓰기란 작자 자신이 스스로 ‘뜻한 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은 것(意之所之 隨即記錄)’이라는 洪邁의 글처럼 自意性을 담보로 글을 쓴다는 뜻이다. 반면에 實用을 담보로 한 글쓰기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이르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보다는 當意性에 기반을 두고

15)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경운의 『고대일록』과 이탁영의 『정만록』을 들 수 있다. 정경운의 경우 임란 당시 처사의 신분으로 倡義하였으나, 스스로 왕명의 위해 봉직된 것 이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부심은 공적인 문서인 통문, 격문, 교서 등의 글을 따로 『別錄』으로 묶는 기록정신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탁영은 중인 신분임에도 그 기록의식이 뛰어나 『정만록』이 영남지방의 임란 사적을 채집케 할 때, 제출되기도 하였고, 왕도 보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16) 장경남은 이러한 문제에 주시하여, 사적 실기, 공적 실기라는 표현보다 사적 중심의 실기, 공적 중심의 실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실제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7) 쾌락성은 自己滿足을 위하여 문학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교훈성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문학을 이타적으로 활용한다.

있으며, 효과를 기대하는 글쓰기를 이룬다.

수외에 근거를 둔 전쟁실기는 주로 사적 성격의 실기와 유사하다. 즉 작자 자신의 주변적 사실과 개인적인 생활현실과 전쟁체험을 소재로 차용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쟁실기의 특징은 역사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박진감 등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독자를 상정하고 글쓰기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독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수외에 근거를 둔 전쟁실기의 목적은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생체험에 대한 기록정신과 개인의 역사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와 같은 포로실기류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실용에 기반을 둔 전쟁실기는 공적 성격의 실기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작자의 신분은 주로 집권층이거나, 참전관료층, 참전민간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쟁실기의 서술 대상은 개인의 생활주변의 이야기 보다는 王室·官·軍 등 공적 기관의 史實이나, 사회문제, 주요 전투 및 큰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독자 또는 후대 사람들이 읽는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다.

실용에 기반을 둔 전쟁실기의 목적은, 전쟁실기를 통해 독자층이나 후대인이 어떤 효용이나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가끔 작자의 내면적 반응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주로 관리나 학자 또는 선구자로서 가치관이 표현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중군실기 또는 전쟁 후의 회고록 형태의 실기들로 대표적인 작품은 柳成龍의 『懲愆錄』, 鄭慶雲의 『孤臺日記』, 鄭琢의 『龍蛇日記』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18)</sup>

18) 이러한 작품들은 작품의 서두나 말미에 후대인에게 鑑戒가 되기를 바란다는 작자의 서술의도가 밝혀져 있다.

작품에 따라서 수의와 실용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오류들은 아래의 새로운 분류방법론이 제시될수록 조금씩 줄어들리라 기대한다.

## 2. 敘述時點에 따른 분류

황패강은 그의 책에서 '正史와 같이 公式的인 서술만 시종한 實記類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後人이나 後孫들이 先人이나 先祖를 顯揚하려는 목적에서 제작한 까닭으로 당자의 생생한 체험과는 거리가 없을 수 없고, 자신의 체험을 서술한 실기와는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sup>19)</sup>고 하면서 실제 전쟁을 겪지 않은 작자가 서술한 실기를 전쟁실기의 범주에서 배제하였다. 이것은 卓見으로써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작자를 전쟁실기의 작자로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전쟁을 체험한 작자가 직접 서술한 전쟁실기 또한 전쟁실기가 실제로 서술된 時點에 따라 좀 더 정치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전쟁이라는 일상을 매일 매일 현재라는 서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하였는지, 전쟁이라는 경험을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로써 서술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전자의 경우처럼 일상의 기록이라면 이야기는 미래가 아닌 과거만을 헤아릴 수밖에 없으며,<sup>20)</sup> 후자의 경우는 미래를 알 수 있기에 기억에 의존하여 보존된 표상은 작자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다.<sup>21)</sup> 즉 후자의 경우 작자의 의지에 의해

19) 황패강, 앞의 책, p.11.

20) S. 채트먼/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0. p.192.

21) 이체연, 앞의 책, p.55.

드러냄과 감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22)</sup>

임진왜란 전쟁실기도 매일 매일 일상의 기록이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된 전쟁실기와 전쟁 이후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전쟁실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쟁실기가 史實을 기반으로 둔다는 점에서 '史'의 성격이 강한데, 魏晉南北朝시대의 문예비평가인 劉勰도 역사서술에 있어 역사와 역사서술 실제 기록 시점의 차이를 경계하고 있다.

먼 과거의 사실을 추적함에 있어 과거로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록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公羊高는 논평하기를 <전해들은 것은 서로 다른 해석될 때문에 말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리고 荀況은 말하기를, <먼 과거 일은 생략해서 전하게 되고 최근의 일은 상세히 전하게 된다>고 했다.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은 기록하지 말아야 하는데, 역사가들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기이한 것을 편애하여 사실들이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전해들은 것을 전달할 때는 과장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먼 과거의 일을 기록할 때는 그것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들은 상식적인 것은 내던져 버리고 기이한 것을 취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보증이 없는 설명들을 위한 버팀대를 찾기 위하여 마치 구멍을 뚫고 땅의 파헤치듯이 한 다음, <이전의 사서들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내 저서에는 기록되었다>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잘못과 과정의 원천인데, 과거에 관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sup>23)</sup>

즉 매일 매일 일상을 기록한 전쟁실기와 전쟁 또는 사건 이후 기억에 의

22) 吹霜煦露 寒暑筆端(이미 얼어 붙은 것과 이슬에 적셔진 것을 입김으로 녹이고 말리려는 것과 같은, 즉 추움과 더움을 붓으로 조작하는 것) :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작성하면 왜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劉勰 지음, 최동호 역편, 『文心雕龍』, 민음사, 1994, p.211.

23) 若夫追述遠代, 代遠多僞, 公羊高云, 傳聞異辭; 荀況稱, 錄遠略近; 蓋文疑則闕, 貴信史也, 然俗皆愛奇, 莫顧實理, 傳聞而欲偉其事, 錄遠而欲詳其跡, 於是棄同即異, 穿鑿傍設, 舊史所無, 我書則傳, 此訛濫之本源, 而述遠之巨蠹也. - 劉勰, 위의 책, pp.208~209.

존한 한 서술은 같은 사건을 묘사하더라도 성격 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특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억이란 독특하고 매우 개인적인 능력으로,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며, 같은 경험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되기 때문이다.<sup>24)</sup>

전자가 매일 매일의 일상에 대한 내용을, 현장성과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하였다면, 후자는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기억된 이미지(image)가 작자에 의해 감정이나 사상과 함께 표출되기가 쉽다.<sup>25)</sup> 또한 전자가 현재의 일상을 기록하기에 미래를 알 수 없어 플롯의 전개가 어려워 보이는데 비해, 후자는 기억에 의존한 서술이기에 사건의 시작뿐 아니라 그 결말을 알 수가 있다. 즉 대표적 서사물인 소설처럼 플롯의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sup>26)</sup>

일상에 대한 기록과 기억에 의존한 서술을 변별하는 방법은 실기가 編年體形式으로 서술되었는지, 紀事本末體形式으로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용이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즉 일상에 대한 기록은 년, 월, 일에 맞추어 기록된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를, 기억에 의존한 서술은 주로 사건의 흐름

24) 이상미, 「기억과 기록의 유람(遊覽)－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6.

25) 실제로는 일상의 기록형식 또한, 100% 현장성과 사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서술시간 차이의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기록은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담론의 시간)과 보통 과거시제를 취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시간, 즉 이야기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배제되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상에 대한 기록과 기억에 의존한 서술 사이에는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6) 일상에 대한 기록은 플롯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롯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펼쳐나가는 것(displaying)이라 할 수 있으며, 기억에 대한 기록은 사건의 결말을 알고 진행하기에 플롯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unraveling)으로, 둘 다 문학성을 내재하고 있다.

27) 편년체, 기사본말체, 기전체 등은 역사서술의 방법에서 나온 용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학계에서 새로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나 회고의 성격이 강한 기사체형식의 전쟁실기로 쉽게 변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28)</sup>

편년체적 서술 형식의 작품들은 작가의 체험세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도 끝을 맺는 진술의 한시성이 있는데 반해, 기사체적 서술 형식의 작품들은 일정한 구도 속에서 논리적인 체계와 플롯의 전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하지만 실제 전쟁실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편년체 형식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그날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편년체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기억에 의존한 서술을 하는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포로실기류가 여기에 해당한다.<sup>30)</sup> 포로실기는 주로 ‘避難(방어)－被拉－捕虜 生活－脫出－苦難 歸鄉’의 공통된 서술구조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잘 짜여진 서술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포로실기가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 기록된 시점은 작자의 귀향 이후이기 때문이다. 즉 기록된 시간과 서술되는 행위 시간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년체 형식과 일상의 기록이, 기사체 형식과 기억에 의존한 서술이 반드시 병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28) 전쟁실기를 살펴보면, 한 제명 아래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작자는 자신의 서술의도에 따라 편년체형식을 활용할 때도 있고, 기사체 형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서술할 때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편년체 서술 형식을 쓰고 있는 작품들은 책의 제목을 한결 같이 ‘○○日記(日錄)’로 하여 일기 형식의 글임을 나타내고 있고, 기사체 또는 편년체의 혼합형태의 작품들의 제목은 모두 ‘○○錄’, ‘○○잡록’, ‘○○漫錄’, ‘○○記’라고 하고 있다.－장경남, 앞의 책, p.165.

29) 위의 책, p.164.

30) 포로실기들은 자신의 피랍과정에서 귀향까지를 기록할 때는 편년체 양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의 문물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할 때는 기사체 또는 공적 문서형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후 나오는 ‘포로실기’는 귀향을 모티프로한 편년체 형식의 실기로 의미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31) 장경남, 앞의 책, p.130.

있다.

歸鄉을 모티프로 한 포로실기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행위나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된 전쟁실기가 편년체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주요한 전투에 대한 당시의 간단한 기록을 근거로 전투가 끝난 이후에 작자가 기억과 감정, 사상 등을 조합하여 다시 서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sup>32)</sup> 그렇다면 기억에 의존한 서술에서 왜 기사체 형식이 활용되지 않고 편년체 형식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억에 의존한 서술은 사실 행위나 사건의 흐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상을 기록하는 편년체처럼 시간의 순차성이나 시간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기억에 의존한 서술에서 편년체 형식을 취하는 것은 편년체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건이나 행위 또는 주제에 대하여 사실성과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독자들과의 감정의 교감 및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서술로,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의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있는 작품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년체 형식, 기사체 형식으로 전쟁실기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일상에 대한 기록인지, 기억에 의존한 서술인지로 전쟁실기를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상에 대한 기록에 해당하는 전쟁실기는 매일 매일 기록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日誌 성격의 전쟁실기들로, 대표적인 작품은 정탁의 『용사일기』, 정경운의 『고대일록』, 오희문의 『쇄미록』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억에 의존한 서술에 해당하는 전쟁실기는 회고담 위주로 기사체 형식을

32)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 중 「晉州敘事」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주서사」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중요한 8일간의 기록을 편년체 형식을 빌어 서술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는 전쟁실기, 귀향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편년체 형식의 포로 실기, 주요 사건을 편년체 형식을 빌어 서술한 전쟁실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류성룡의 『징비록』, 정경득의 『만사록』, 안방준의 「진주서사」를 꼽을 수 있다.

### 3. 敍述主體가 敍述客體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른 분류

성리학자들은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법으로 ‘觀物’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은 도학과 문학이 상호 함섭 관계라는 전제아래, 새로운 문학기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정우락은 사물에 대한 인식방법을 셋으로 나누어 즉물적 인식, 이념적 인식, 역사적 인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모두 ‘자아-사물-개념’이라는 사물 인식의 삼각구도에서 기인한다. 즉물적 인식의 경우 개념이 사물 그 자체가 되고, 이념적 인식의 경우 개념은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추상적 이념이 되며, 역사적 인식의 경우 개념은 구체적 현실이 된다. 즉물적 인식을 동원하여 창작하게 되면, 사물을 보면서 사물 자체를 살피는 것이니 ‘觀物察物’로 요약되고, 사물을 보면서 이념을 생각하면 ‘觀物察理’라 할 수 있으며, 사물을 통해 역사적 현실을 살피는 것은 ‘觀物察世’로 귀결된다.<sup>33)</sup>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혼란은 ‘관물찰물’, ‘관물찰리’, ‘관물찰세’의 사물에 대한 3가지 인식방법 중 ‘관물찰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이 가진 외형이나 사물이 내재하고 있는 추상적인 이념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사물이 당장 현실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瞻物思人’이 당시 문학의 큰 주제이자 소재일 수밖에 없었다.

33) 정우락,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도서출판 역락, 2009, pp.547~603.



事物은 엄밀히 따지면 다시 ‘事’와 ‘物’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의 ‘事’는 人事로써 인문과학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物’은 自然物로 자연과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sup>34)</sup> 임진왜란이라는 큰 충격은 사람들에게 ‘事物’ 중 ‘事’에 대하여 跋行에 가까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事’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事’의 네 가지 형식인 ‘順·位·格·式’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으로 인해 당시의 문학에서 景物을 노래하거나, 說里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 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와 갈등에 대한 작품이 주를 이루게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도구에 대한 문제도 임진왜란과 무관하지 않았다. 소옹은 『황극경세서』 「관물내편」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도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소옹은 사물을 바라보는 도구를 크게 ‘以目觀物’, ‘以心觀物’, ‘以理觀物’로 나누고 있다. ‘이목관물’은 감각기관의 하나인 ‘눈’으로써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이심관물’은 마음의 눈을 통하여, 가장 높은 경지인 ‘이리관물’은 성리학의 요체인 ‘理’를 통해서 사물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임진왜란은 사람들에게 ‘心’에 의존하는 觀物法을 강요하였다. 그 이유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가족, 친구, 생활터전, 행복 등을 앗아가고, 이런 상황은 사람들에게 감정, 사상, 의식 등 심리적인 요인에 충실하게끔 하고 되며, ‘觀物’을 하게 될 때에도, ‘目’이나 ‘理’보다 ‘心’에 의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sup>35)</sup>

정리하면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敘述客體는 당시 敘述主體들에게 역사적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觀物察世), 자연물이나 절대적 진리보다는 인간과 사회문제, 갈등 등을 주로 생각하게 하였으며(人事, 睹物思人),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도구로써, 주로 마음을 활용하게 하였다(以心觀物).

34) 위의 책, p.558.

35) 전쟁은 눈에 실제 보이는 참혹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적 공포로 인해 사람들에게 恐懼의 증세를 더 유발시킨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 전제 아래, 인간의 심리적 인식에 의해 전쟁 실기를 양분해 보고자 한다. 즉 임진왜란이라는 서술객체를 당시의 서술주체인 전쟁실기 작가들은 어떠한 심리적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Benedetto Croce(1866~1952)는 인간의 인식을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고 있다. 즉 直觀的 認識(intuitive knowledge)과 論理的 認識(logical knowledge)이 그것이다. 전자는 상상에 의한 개성적 인식으로서 개개 사물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의 내면에 심상을 산출하는 인식이다. 한편 후자는 지성에 의한 보편적 인식으로서 개개 사물 관계에 대한 인식이며, 개념을 산출하는 인식이다.<sup>36)</sup>

전쟁실기를 직관적 인식과 논리적 인식으로 구분해 논의해 보면 아래와 같다.

바로 위의 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직관적 인식과 논리적 인식의 잣대로 적용해 보면, 일상의 기록에 해당하는 전쟁실기들은 매일 매일 다르게 진행되는 일상을 기록하기에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직관적 인식에 의해 기록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기억에 의존한 서술은 사건이나 행위가 끝난 이후에 기록되기에 직관적 인식보다는 논리적 인식 즉, 지성에 의한 보편적인 서술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에 의존한 서술에 해당하는 전쟁실기들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회고록의 형식을 활용한 전쟁실기는 후인들의 鑑戒를 목적으로 하기에 논리적 인식에 의해 서술된 전쟁실기로 보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포로 실기의 경우는 오히려 감정이 쉽게 드러나고 있으며, 작자 스스로 감정의 노출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작품들은 논리적 인식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직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서술된

36)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p.42.

전쟁실기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리하면, 임진왜란이라는 서술객체를 당시의 서술주체들인 전쟁실기 작가들은 직관적 인식과 논리적 인식을 통해 바라보았으며, 전쟁실기 또한 이에 따라 양분되었다.

직관적 인식에 의해 서술된 전쟁실기는 일상을 기록한 전쟁실기와, 작자의 감정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는 포로실기 등이며,<sup>37)</sup> 논리적 인식에 의해 서술된 전쟁실기는 전쟁 이후 감계를 목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전쟁실기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영성하게나마, 敘述意圖에 따른 분류, 敘述時點에 따른 분류, 敘述主體가 敘述客體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른 분류 등 3가지 기준으로 전쟁실기를 강제로 분류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전쟁실기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3가지 기준을 정하여 전쟁실기를 구분하다 보니 비슷한 성격의 전쟁실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범박하기는 하지만 試論이라는 논제명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전쟁실기를 새로이 분류해보고자 한다.

#### IV.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새로운 試案

위의 장에서 전쟁실기를 敘述意圖에 따라서 분류해 보기도 하고, 敘述時點에 따라 분류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으며, 敘述主體가 敘述客體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라서도 영성하게나마 분류를 해보았다.

서술의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쟁실기를 분류했을 때는 隨意에 의하여 전

37) 사실 포로실기의 경우 직관적 인식에 의해 서술되기는 하지만 일상의 기록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쟁실기가 서술되었는지와 實用에 목적을 두고 서술하였는지 분류하였다. 그 결과 수의에 의해 서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실기는 포로실기와 같은 류의 전쟁실기 이고, 실용을 목적으로 서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전쟁실기는 전쟁 중에 매일 매일의 일상을 기록한 편년체 형식의 실기와 전쟁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로 양분되었다.

다음으로 언제 서술하였는지 하는 서술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실기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매일 매일의 일상을 기록한 편년체 형식의 군중실기·피난실기·호종실기류와 사건이나 행위 이후에 기억에 의존해 서술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편년체 형식을 차용한 포로실기·중요한 사건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쟁실기로 양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태도에 의해 전쟁실기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된 전쟁실기로는 일상을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와 감정이 작품속에 내재된 포로실기류가 여기에 해당함을 확인했으며, 논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된 전쟁실기는 주로 전쟁 이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가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3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전쟁실기를 나누어 보는 順推의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전쟁실기를 조망했을 때 전쟁실기를 명확히 분류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위에 분류된 전쟁실기 작품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를 逆推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포로실기류는 작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서술되었으리라 추정되며, 귀향을 모티프로 삼고 실제 행위시간과 서술 시간 사이의 간극이 있고, 직관적 인식에 의해 서술되었다. 서술이 작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수의에 의해 서술되기도

하지만 실용의 목적이 더욱 크다. 일상을 매일 매일 기록하기에 행위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거의 일치하며, 직관적 인식에 의해 서술되었다. 주로 종군실기, 호종실기가 많으며, 피난실기도 여기에 해당한다. 작자가 위치하고 있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서술이 진행된다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실용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행위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논리적 인식에 의해 서술되었고, 교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로 종군실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작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되기보다는 어떤 사건의 始終이나 사건의 의미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다.

3가지 전쟁실기 모두 뚜렷한 변별성을 지니고 있으나, 포로실기류·일상을 기록한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기억에 의존한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를 서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포로실기류는 작자의 상황과 실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을 기록한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서술된 시점을, 기사체 형식의 전쟁실기는 서술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명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3종류의 실기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3종류의 실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위의 3종류의 전쟁실기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 또한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 3종류의 전쟁실기가 문학성을 지닌 서사물로, 특히 서사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이 잘 갖추고 있으며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다.<sup>38)</sup>

위에 간략하게 논의된 사실만으로도 3종류의 전쟁실기는 서사의 3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요소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힘입어 연구자는 서사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위의 3종류의 전쟁실기를

38) 전쟁실기가 임·병 양단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서사물인 고전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재편해보고자 한다. 3종류의 실기는 인물, 배경, 사건의 3가지 요소를 잘 조화되어 문학성이 돋보이는데, 특히 3가지 요소 중 한 가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2가지 요소가 주된 한 가지 요소를 보조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자는 인물 중심, 배경 중심, 사건 중심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서사의 3가지 요소와 위에 논의한 3종류의 전쟁실기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포로실기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포로실기류의 경우 주로 피난에서 시작하여 귀향까지의 플롯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서사의 3요소로 살펴보면 인물은 포로신분의 작자, 배경은 피난-귀향까지의 시·공간이며, 사건은 피난, 피납, 포로생활, 귀향 등 다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3요소 중 사건과 배경은 인물에 비해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이 작자 중심의 생활주변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포로실기류의 경우 인물이 중심이 되고, 사건과 배경이 보조를 이루는 인물 중심의 실기라고 볼 수 있다. 범위를 확장하면 포로실기류 이외에도 초유사 김성일의 임란 당시 활동을 다룬 이로의 『용사일기』, 소년시절의 임란 기억을 회고한 유진의 『임진록』도 인물중심의 전쟁실기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감정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많이 등장한다.

인물중심의 전쟁실기의 특성은 포로실기류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수의, 회고의 서술, 직관적 인식에 의한 기록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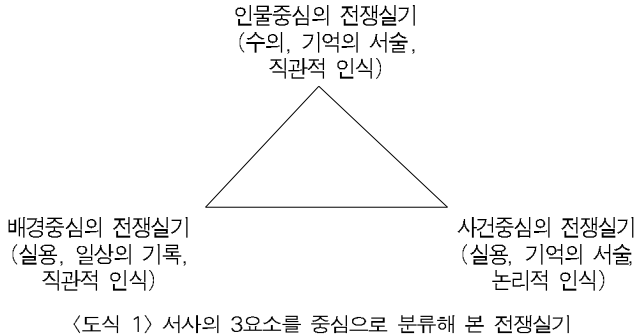
다음은 일상을 기록한 편년체 형식의 전쟁실기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전쟁실기는 인물이 시간·공간이라는 상황 하에서 현장감을 살려 서술되는 것이 특징으로 일정한 플롯이 없이 작자가 집필을 그만두는 순간이 바로 실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작자가 전쟁실기의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으나, 인물중심의 실기처럼 작자 주변을 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많다. 작자가 위치한 시·공간적인 상황 즉 배경이 변경될 때마다. 피난실기, 중군실기, 호종실기 등으로 주된 내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다. 매일 매일의 기록이다 보니 주된 사건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보다는 변화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배경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인물이나 사건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주로 일지형식으로 서술되었으며, 현장감과 사실감을 강조한다. 이를 배경중심의 전쟁실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사체형식의 전쟁실기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전쟁실기는 주인공으로 불리어질만한 뚜렷한 인물이 없으며, 많은 보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경은 한정된 시·공간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즉 임진왜란 전 기간, 피랍 기간 동안 등 배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에 紀事本末의 형식을 취하고, 편년체 양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주서사」처럼 편년체 형식을 빌어 주요 사건을 기록하기도 한다. 주로 전쟁실기의 서두나 말미에 감회나 서술의도를 적고 있는데, 주로 후인들을 위한 鑑戒가 주를 이룬다. 행위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작자의 의도가 분명히 담긴 작품으로 윤색되기도 하는데,<sup>39)</sup> 그 목적은 주로 교훈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사건중심의 전쟁실기로 부르도록 하겠다. 배경중심의 실기가 사실을 기록하였다면, 사건중심의 실기는 사실보다는 眞實을 기록하는데 노력한 차이가 있다.

서사의 3요소에 맞추어 전쟁실기를 분류하여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39) “삼가 그 글을 봄으로 인해 다시 내용을 보태거나 빼면서 윤색하여 ‘晉州敘事’라 이름 붙였다.”(安邦俊, 『隱峯野史別錄』) - 장경남, 위의 책, p.48.



지금까지 전쟁실기를 분류하는 새로운 시도로 서술의도, 서술시점, 서술 주체가 서술객체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라 전쟁실기를 강제적으로 분류해보았다. 그 이후 역추의 방법을 이용해 분류된 전쟁실기의 특징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쟁실기의 모든 작품들이 서사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요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작품들을 분류해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요소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나머지 2가지 요소가 전혀 배제가 된 것이 아니라 주된 요소를 보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로써 3종류의 전쟁실기는 모두 서사물로서의 문학성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V. 결론

지금까지 ‘壬亂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이라는 논제명 뒤에 기대어, 기존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분류방법을 그 기반으로 새로이 임진왜란 전쟁실기를 분류해 보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해보았다.

먼저 敘述意圖에 따른 분류, 敘述時點에 따른 분류, 敘述主體가 敘述客體



를 보는 인식태도에 따른 분류 등 3가지 기준의 영성한 틀을 이용하여 전쟁실기를 분류하여 보았다. 그 이후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전쟁실기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逆推의 방법을 동원하여 분류된 전쟁실기의 특징을 다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대략 3종류의 성격이 대별되는 전쟁실기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전쟁실기들은 공교롭게도 각각 서사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범박하지만 임란 전쟁실기를 인물 중심의 전쟁실기, 배경 중심의 전쟁실기, 사건 중심의 전쟁실기로 구분해 보았다.

시론성격의 연구이기에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 배경, 사건 중심의 전쟁실기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그 시작으로 해서 이 3종류의 전쟁실기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성격 및 문학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 【 참고 문헌 】

-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 신상철, 『隨筆文學의 理論』, 三英社, 1984.
-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장덕순,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 정우락,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도서출판 역락, 2009.
- 황패강,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 유협 지음, 최동호 역편, 『文心雕龍』, 민음사, 1994.
- 제레미 뎀블링·이호 옮김,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예림기획, 2000.
- 채트먼. S/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0.
- 이상미, 「기억과 기록의 유람(遊覽)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  
국화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우경, 「朝鮮朝 '日記文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소재영, 「壬亂과 捕虜日記」,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學研究院, 1980.
- \_\_\_\_\_, 「壬亂捕虜들의 海外體驗」, 『旅行과 體驗의 文學』,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5.
-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冠岳語文研究』 제20집, 서울대 國語國文學科,  
1995.

Abstract

An Essay on Seeking for New Classification Method of Jeonjaengsilgi  
 — the Basis of Imjinwaeran Jeonjaengsilgi —

Choi, Jae-Ho

Imjinwaeran Jeonjaengsilgi(fact or diary of having recorded Imjinwaeran) was prepared on the basis of a fact called Imjinwaeran, thereby having been much interested so far by the field in the study of history. As the self-reflection on this, this study aims to re-illuminate the value that Imjinwaeran Jeonjaengsilgi has as literature.

As its beginning, first of all, the aim is to suggest new classification on Jeonjaengsilgi with character of a tentative plan(試案) even if being thoughtless(泛博), by examining once again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Jeonjaengsilgi in the existing researchers and by supplementing after confirming whether there is careless part.

The researcher first tried to classify Jeonjaengsilgi according to 3 criteria such as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rrative intentio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oint of narration,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ttitude that the narrator sees the narrative object.

As a result, it could be confirmed to be divided broadly into Jeonjaengsilgi with roughly 3 kinds of characters. Those Jeonjaengsilgi(s) could be confirmed a fact that especially one element is shown notably in each among character, background, and event, which are 3 elements of narration. These were decided to be designated as Jeonjaengsilgi with the center on character, Jeonjaengsilgi with the center on background, and Jeonjaengsilgi with the center on event.

Key Word

Jeonjaengsilgi, Imjinwaeran, narrative intention, point of narration, attitude that the narrator sees the narrative object, character, background, event

▪ 논문투고일 : 2009.12.30. 심사시작일 : 2010.1.29. 심사완료일 : 2010.2.8.